

17세기 의궤 속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방식*

한 혜 선**

목 차

- I. 머리말
- II. 화원 소용 백자의 사용양상과 종류
- III. 화원 소용 백자의 지급방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조선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자는 관요였던 사용원(司饗院) 분원(分院)에서 주로 제작하였다. 크게 가는 모래받침을 받쳐 갑발에 넣어서 개별 번조한 양질백자와 태도빚음이나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조질백자로 구분된다. 그동안 의례기와 최고급 음식기로 사용되었던 양질백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 왔으나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는 조질백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필자는 의궤 자료를 살펴보면 중 왕실의 각종 행사에 동원된 장인들에게 상당량의 백자가 지급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백자가 단순히 음식기명이나 의례기를 넘어 장인들의 제작도구로도 활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자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작업도구로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사용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정부(교육부)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145)

** 韓惠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shan94@hanmail.net
투고일: 2022. 04. 27. 심사완료일: 2022. 06. 15. 게재확정일: 2022. 0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39>

장인은 ‘화원(畫員)’이었다.

화원이 사용한 백자사발과 보이는 막자와 짝을 이루어 안료를 뿜거나 개어서 사용할 때 활용하였으며, 안료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채색할 때는 접시와 종자를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료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원에게 제공된 백자의 양이 상당했으며, 이를 사용원과 평시서에서 공급하였다. 이때 화원에게 공급한 백자는 관요에서 생산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질의 신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관사에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기도 했다.

그동안 도자사에서 의궤를 다룰 때 주로 의례기에 집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왕실과 중앙관청에서는 다양한 용도와 방식으로 백자가 사용되었다. 관요에서 제작된 수많은 백자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궤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핵심어 | 조선, 의궤, 화원, 백자, 사용원, 평시서

I.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자를 제작하여 사용처까지 조달을 책임졌던 사용원(司饗院)의 분원(分院)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문헌과 백자요지 발굴조사결과를 보면 1467년 즈음 공식적으로 관요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 민영화되어 없어질 때까지 400년 이상, 적어도 320여기 이상의 가마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들은 가는 모래받침을 받쳐 갑발에 넣어서 개별 번조한 양질백자와 태도빚음이나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조질백자로 구분된다. 그동안 의례기와 최고급 음식기로 사용되었던 양질백자에 대해서는 관심

1)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1998 ; 조선관요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외 다수.

과 연구가 있어 왔으나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는 조질백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²⁾

그런데 필자는 의례 자료를 살펴보던 중 왕실의 각종 행사에 동원된 장인들에게 작업도구의 하나로 백자가 지급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백자가 단순히 음식기명이나 의례기를 넘어 장인들의 제작도구로도 활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자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작업도구로 썼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사용한 장인은 ‘화원(畫員)’이었다. 화원은 업무 특성상 여러 종류의 안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의 가공과 혼색, 농도조절 등의 과정에 다른 장인들에 비해 백자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백자의 용도를 추적하는 방법의 하나로 화원이 작업도구로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사용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³⁾ 의례가 문헌기록이라는 한계가 있고 실제 관요의 백자요지 출토유물과 완벽하게 매칭하는 것이 쉽진 않으나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조질백자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분석에는 17세기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 의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 2) 장기훈,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1998 ; 안성희,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美術史學研究』 263, 한국미술사학회, 2009 ;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 최건,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 - 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 『동양미술사학』 3, 동양미술사학회, 2015 ;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美術史學報』 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 윤효정, 「조선전기 宣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안세진, 「조선 16세기 기영연(耆英宴)에 사용된 사연용(賜宴用) 화준(花樽)주준(酒樽)의 조형 특징과 진설 방식 - <선조조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圖)>를 중심으로 -」, 『동양미술사학』 14, 동양미술사학회, 2022 외 다수.
- 3) 17세기의 의례에서 확인되는 화원소용 물품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부록 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분석에 활용한 의뢰의 시기를 17세기로 한정된 것은 왕실 행사에 투여된 재정과 현물의 조달방식이 이 시기 동안 비교적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⁴⁾ 추후에는 이 논문을 기초로 하여 다른 시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비교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II. 회원 소용 백자의 사용양상과 종류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17세기에 간행된 의뢰 중에서 회원에게 어떤 물품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33종 55건이다. 예장(禮葬)과 국장(國葬), 부묘(附廟), 빈전(殯殿), 가례(嘉禮), 책례(冊禮) 등의 행사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여러 왕실 행사에서 회원이 어떤 작업에 동원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때 사용한 백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회원의 업무와 백자 사용

조선시대 회원은 형상의 본(本)을 뜨거나, 전이(轉移)하기 위해 굵고 그리고 칠하는 행위 전반을 뜻하는 모사(模寫), 종이에 쓰인 정보 글씨를 의례물에 안착시키는 작업, 나무와 금석물에 음각으로 새겨 놓은 후에 금색이나 홍색으로 메꾸는 전금(填金)과 전홍(填紅) 작업 등을 담당했다.⁵⁾ 특히 각종 왕실 행사에 동원된 회원은 많은 업무를 담당했다. 병풍·어진(御眞)·반차도(班次

4) 왕실 행사를 위해 설치된 도감(都監)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17세기 후반~18세기, 19세기 이후로 현물 조달과 재정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5) 홍선표, 「회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조선회원대전』, Leeum, 2011, 340-341쪽.

圖)·의례의 도설(圖說) 제작뿐만 아니라 의장(儀仗)·채여(彩輿)·가구 등과 같은 공예품의 채색과 도안작업, 당가(唐家)와 정자각(丁字閣) 등의 단청 채색, 서책의 행간에 줄을 긋는 인찰(印札)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였다.⁶⁾

이렇게 도안 및 채색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화원들에게 적절한 도구와 재료가 제공되는 것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특히 채색을 기반으로 한 작업에 집중했던 화원의 특성상 다양한 안료와 그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와 도포제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했다. 조선시대 왕실 관련 문헌기록에서만 60여종 이상의 안료가 등장하며,⁷⁾ 색에 따라 적색, 녹색, 청색, 황색, 흑백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안료들은 단청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품의 채색과 도안, 다양한 성격의 회화 등에 사용되었다.⁸⁾ 이 때문에 화원에게 다른 장인들에 비해 안료를 갈거나 뺀 용도 또는 안료를 개어 쓸 때 필요한 용도 등으로 많은 양의 백자가 필요했다. 이 절에서는 우선 화원들이 사용하는 백자의 양상을 파악하기 전에 각 행사에서 화원이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17세기 의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왕실 행사와 의례에 동원된 화원은 각종 가마의 제작과 수리에 동원되어 전체를 채색하고 문양을 그려 넣는 작업을 했다. 『원종(元宗)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奎13518)는 1627년(인조 5) 8월 인조의 생부인 원종의 묘소 흥경원(興慶園)을 경기 양주에서 김포의 생모 계운궁(啓運宮) 인헌왕후 구씨(仁獻王后 具氏)의 묘소 옆으로 이장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⁹⁾ 이 의례에

6)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미술사연구회, 1995, 208-213쪽;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41-166쪽; 장경희, 『의례 속 조선의 장인 1』, 솔과학, 2013,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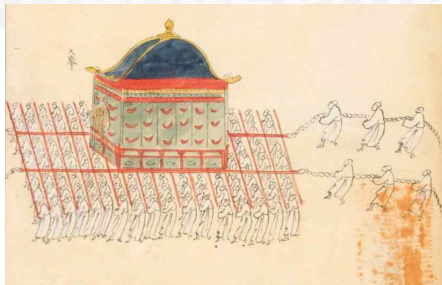
7) 정혜영, 「고문헌에 나타난 전통안료의 원료 및 산출지 정보」, 『전통안료와 원료광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6쪽.

8) 광동해, 『단청과 불화에 전용된 전통안료의 문헌사적 연구』, 학연문화사, 2012, 59-63쪽.

9)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례 해제집 3』, 2005, 251쪽.

따르면 일방(一房)에서는 천장(遷葬)에 사용한 대여(大輿)·견여(肩輿)·채여(彩輦)·운여(輪輦) 등을 제작하거나 개보수를 담당하였다. 이때 화원은 채여의 봉두(鳳頭)와 운각(雲角)에 칠을 하는 역할로 참여했다. 한편 대여의 채색에는 주홍(朱紅), 하엽(荷葉), 삼록(三碌), 진분(眞粉), 심중청(深重靑), 동황(同黃), 백반(白礬), 청화(靑花), 아교(阿膠), 진유(眞油), 황단(黃丹) 등의 안료와 접착제 등이 사용되었고 이때 많은 수량의 백자가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교는 필요한 안료를 개어서 쓰는 접착제이자 안료를 칠하기 전에 바탕재의 청소와 건조 처리에 활용되었다. 채색 이후에는 방충과 직사광선으로부터 색을 보호하기 진유와 같은 기름 성분의 도포제를 사용했다.¹⁰⁾ 색을 내는 안료 외에 접착제와 도포제 또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였다. 예를 들어 공작석을 가공하여 만든 석록(石綠)은 수비의 정도에 따라 두록(頭綠)·이록(二綠)·삼록(三綠)으로 구분되는데, 항상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를 섞어 써야 하고 붓을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빨아서 아교를 제거해야 한다.¹¹⁾ 이와 같이 가마의 채색 작업에는 안료 외에도 접착제와 도포제까지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수량의 백자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각종 왕실 행사에서 사용된 여연(輿輦)의 채색과 장식 작업에 화원이 동원된 사례는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 『[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奎



도 1. 『[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奎13918) 반차도의 대여

10)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965-966쪽.

11)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 2009, 32-33쪽.

13918), 『[현종]왕세손책례도감의궤([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奎14224)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 1). 이 가운데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奎13062)을 보면 화원이 삼방(三房)에 소속되어 여연과 의장(儀仗)을 담당했는데 연은 9번이나 덧칠했다.¹²⁾ 또한 종묘의 영녕전을 수리 보수한 것을 기록한 『영녕전수개도감의궤』(奎14224)에서도 요역(腰輿)과 용정(龍亭) 등의 기화(起畫) 작업에 화원이 동원되었고 40개 정도의 백자를 지급하였다.¹³⁾

왕실의례에는 교명(敎命)·죽책(竹冊)·옥책(玉冊), 그리고 그것을 담는 함(函)과 궤(櫃), 이를 올려 두는 각종 상(床) 등이 필요하다. 이때 함과 궤에 문양을 그려 넣는 것도 화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현종]왕세손책례도감의궤』(奎13067)을 보면 화원은 일방에서 준비한 교명을 담은 흑칠궤(黑漆櫃)에 운룡문, 매죽문, 난초문을 니금(泥金)으로 그려 넣었다.¹⁴⁾ 또한 『[숙종인현후]가례도감도청의궤([肅宗仁顯后]嘉禮都監都廳儀軌)』(奎13084)에서 확인되듯이 교명의 두루마리 장식에도 화원이 관여하였다.¹⁵⁾ 『[숙종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076)의 일방에서는 죽책 제작을 담당하였고 이를 모두 화원이 맡아 제작하였다.¹⁶⁾ 이들이 채색과 도안 작업을 할 때 수십개의 백자를 사용하였다.¹⁷⁾

12)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 “甘結秩...一要采[腰輿]輿畫成次 畫員所用沙 磨子一介 用後還下次進排事平市署”;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3』, 2005, 139쪽.

13) 『永寧殿修改都監儀軌』(奎14224), “稟目秩...本所所掌腰輿龍亭等 起畫時 畫員所用 沙 貼匙二竹 沙鉢一竹半 沙平甫兒一竹 櫃一坐具鎖鑰 紫硯一面等物 用還次以上下進排事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14)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 “黑漆櫃一部 所入用椶板有足長一尺六寸廣七寸 高蓋并七寸 內塗大紅花紋彭段 豆錫粧飾具鎖鑰 大紅其係多繪纓子 匙家用大紅大段 蓋上盡三瓜雲龍 前後面畫梅竹 兩隅畫蘭草用泥金...”

15) 이성미,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왕실 혼례의 기록』, 소와당, 2008, 280쪽.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앞의 책, 2005, 160-161쪽.

17)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076), “稟目及手本秩...畫員所用 黃毛一條 眞墨

한편 『[인조장렬후사존호]존숭도감의궤([仁祖莊烈后四尊號]尊崇都監儀軌)』(奎13262)의 일방에서는 옥책, 화금내궤, 흑칠외궤를 담당하였고 여기에 화금내궤의 작업에 화원 2명이 참여하였다.¹⁸⁾ 이때에도 20개 이상의 백자가 활용되었다.

화원은 또한 왕실 행사에 사용하는 의장기의 제작과 개보수에도 당연히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효종]부묘도감도청의궤([孝宗]附廟都監都廳儀軌)』(奎13530), 『[현종]부묘도감도청의궤([顯宗]附廟都監儀軌)』(奎135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효종]부묘도감도청의궤』(奎13530)의 의물질(儀物秩)을 살펴보면 용마기(龍馬旗), 현학기(玄鶴旗), 백학기(白鶴旗),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청룡기(靑龍旗), 벽봉기(碧鳳旗),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등 다양한 깃발이 행사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행사에 사용된 의장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제작할 경우에 화원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은 작업도구의 하나로 백자를 썼다.

화원이 왕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맡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병풍 제작이었다.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에 의하면 별궁(別宮)에서 사용할 연화십침중병풍(蓮花十貼中屏風) 제작에 당주홍(唐朱紅), 황단, 삼록, 동황, 진분(眞粉), 청화, 이청(二靑), 삼청(三靑), 당하엽(唐荷葉), 자광(紫硃), 연지(臙脂), 백반, 진묵(眞墨), 아교 등 14종류의 안료와 접착제가 사용되었다.¹⁹⁾ 그렇다

二丁 沙鉢一竹 大貼三竹 沙菓子一介 硯二面 二層櫃一部 陶東海一介 土火爐一介 破油笔一張”

18) 『[仁祖莊烈后四尊號]尊崇都監儀軌』(奎13262), “稟目秩...畫員所用 白沙鉢五 沙貼匙一竹 沙鍾子五等 用還次依前例進排事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戶曹 平市署 內資寺 內贍寺 禮賓寺”;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 2004, 39쪽.

19)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 “稟目秩...別宮先進 蓮花十貼中屏風一坐所入長二尺五寸廣一尺三寸用布帛尺小不等半條代 戶曹所在厚松板一立 取用白細苧布五十一尺 白絲三棧 唐朱紅三兩 黃丹二兩 三硃三兩 同黃一兩三棧 眞粉四兩 靑花三兩 二靑五棧 三靑五棧 唐荷葉十兩 紫硃二棧 臙脂五片 白礪二棧 眞墨一丁 阿膠二

면 최소한 14개 이상 안료를 풀 수 있는 백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병풍을 제작하는 화원에게는 토화로(土火爐) 2개, 백사발 20개, 접시 30개, 보아 10개, 사추 10개를 지급하였다.²⁰⁾ 이렇게 안료의 숫자보다 백자가 많은 이유는 하나의 안료를 여러 농도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섞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화원에게 지급된 백자의 일부는 붓을 빨아 쓸 때 또는 아교와 진유를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상(國喪)과 관련된 빈전과 부묘의례를 기록한 의궤를 보면 모란병풍이 다수 등장하며 이것을 제작하는데 화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란병풍은 왕실의 각종 의례에서 빈번하게 필수품처럼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배설되는 순간 궁궐의 일상 공간이 의례가 설행(設行)되는 장소로 전환되고 그곳을 세속과 단절시켜 성소(聖所)로 바꾸었다(도 2).²¹⁾ 대표적인 사용처는 어진 봉안용, 종묘의례, 빈전과 발인 이후 주정소(晝停所)와 숙소(宿所), 산릉(山陵) 등이다.²²⁾ 『명성왕후]국장도감이방의궤([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奎14869)에 의하면 병풍 6좌(坐)가 사용되었는데, 소병(素屏) 2좌와 화병(畫屏) 4좌로 구성되었다. 소병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여 사용했지만 화병 4좌는 새로 제작하였다.²³⁾ 이때 청화, 삼록, 진분, 황단, 향하엽(鄉荷葉), 당주홍, 석자황(石紫黃), 동황, 언지, 아교, 진묵 등 다양한 안료와 함께 작업

兩...”

- 20)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 “稟目秩...本房所掌 中屏風起畫之役萬分緊急 畫員所用 土火爐二 白沙鉢二竹 貼是三竹 甫兒一竹 沙鎚十介等物 用後還下次以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依 戶曹 平市 瓦署.”
- 21) 김수진, 「성소聖소의 구현 : 조선 왕실 모란병[牧丹屏]의 의미와 용도」, 『안녕 모란』, 국립고궁박물관, 2021, 262쪽.
- 22) 이종숙, 「조선 후기 국장용(國葬用) 모란병[牧丹屏]의 사용과 그 의미-정조(正祖) 국장(國葬) 관련 의궤(儀軌) 분석을 중심으로」, 『古宮文化』 1, 국립고궁박물관, 2007, 64쪽.
- 23) 『[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奎14869), “屏風六坐 畫屏四坐 新造素屏二坐 前排仍用而面紙繪粧裹布改備.”

도구로 백자가 화원에게 제공되었다.



도 2. 모란도병풍, 19~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건물 또는 의례용 구조물의 단청 채색도 화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소현세자]빈궁도감의궤(〔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奎13919)에서는 혼궁의 당가(唐家)의 단청과 현판(懸板)을 다시 칠할 때 화원이 작업을 했고 이때 백자를 썼다.²⁴⁾ 이러한 사례는 영건도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단청 안료를 만들 때 사발, 보아, 접시, 종자 등이 사용되었다.²⁵⁾ 그런데 이렇게 백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4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단청 작업을 하는 화원에게는 소전판(小剪板)과 대전판(大剪板)처럼 나무로 된 판을 제공해서 작업의 편의성을 도왔다.²⁶⁾

24)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奎13919), “魂宮造成所...畫員所用器皿 沙鉢一竹 沙貼是一竹 甫兒一竹 沙槌一介 土火爐一 陶東海一 巨乙乃白苧布二尺”

25) 영건의궤연구회, 앞의 책, 2010, 9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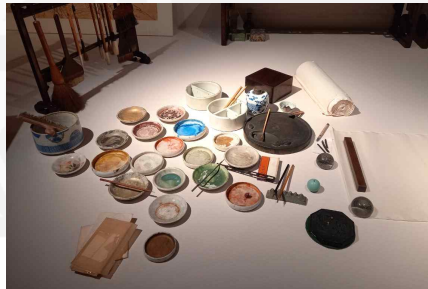
26)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44), “手本秩...丹青時畫員所用 小剪板七箇 大剪板二

이는 아마도 높은 곳에 올라가 단청을 칠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백자보다는 나무판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작업 성격에 맞게 적절히 작업도구를 선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왕실 행사와 건축사업에 동원된 화원들은 단순히 가마와 각종 공예품에 칠을 하는 것에서부터 의장기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의 도안작업, 병풍 제작, 단청작업에 이르기까지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색깔의 안료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다른 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수량의 백자를 활용했다.

2. 백자의 종류

앞 절에서 17세기 의례를 중심으로 많은 종류의 안료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화원에게 지급된 백자의 수량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수량의 백자가 사용된 사례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복원된 화가의 작업광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도 3).



도 3. 조선시대 화가의 작업 모습 복원,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필자 촬영)

그렇다면 화원들은 어떤 종류의 백자를 얼마나 사용했던 것일까? 이는 부록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록의 표를 살펴보면 화원 소용 물품 중에 백자는 사발, 접시, 종자, 막자, 보아가 공통적으로

筒 造作進排亦爲有於本房庫間虛疏出窓處朴排爲於樓上庫 登牀一部 席針二箇 彩刀二箇 爭機一部 畫員所用 木貼匙六箇等物”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완과 대접, 도기제 토화로와 도동해(陶東海) 등도 사용했다.

화원에게 가장 많은 수량이 지급된 백자 중 하나는 사발(沙鉢)이다. 사발은 조선시대 음식기를 대표하는 기종으로, 주로 밥을 담아 먹던 식기이다.²⁷⁾ 굽에서 둥글게 동체가 연결되는 형태로, 구연지름이 넓고 그릇의 깊이가 비교적 깊은 편이다. 17세기 의궤에서 화원에게 지급한 사발은 사발, 상사발(常沙鉢), 백사발(白沙鉢)이라고 표기되었다.²⁸⁾ 사발은 적게는 3개 또는 5개 부터 많게는 1죽(竹) 10개에서 2죽인 20개까지 화원에게 제공되었다. 다른 기종과 비교했을 때 양이 많은 편이다.

한편 사발은 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장인들도 작업도구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각종 공예품에 금박을 붙이는 소임을 담당했던 부금장(付金匠)이나 쇠를 녹여서 붓는 작업을 담당한 주장(注匠)에게도 작업용으로 사발을 지급 하였다.²⁹⁾ 또한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奎13122-v.1-2)을 보면 야근시 등잔용으로 사발이 활용된 사례도 확인되어 음식기명, 장인의 작업도구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보아(浦兒) 또한 화원에게 지급된 작업도구의 하나로 자주 등장한다. 보아는 통상적으로 음식기명으로 차·술·죽·침채(沈菜) 등 물기가 있는 음식을

2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1』, 2018a, 540-541쪽.

28) 여기에서 사발, 상사발, 백사발 사이에 용도나 품질이 차이가 있는지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상(常)’이 붙은 백자의 경우 의궤에 한정해서 보자면 장인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도구이거나 잡물로 사용한 것일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질백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9)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奎13122-v.1-2), “稟目秩...付金匠所用 隅板一坐 綿袖手巾一件 常沙鉢一箇 石紫黃一兩 阿膠四兩 黃筆一柄 雪綿子四錢”; 『[肅宗仁顯后]冊禮都監儀軌』(奎13086), “注匠所用 生麻五兩 休紙九兩 沙板一介 末木五介 沙鉢三立 鹽三升”

30)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奎13122-v.1-2), “手本秩...本所夜役時所用 常沙鉢一竹肉膏三十塊”

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굽에서 둥글게 동체가 연결된 오목한 형태의 그릇이다.³²⁾ 용도와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었는데, 음식기로 사용될 경우 동일한 형태와 크기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보아(茶浦兒)·타락보아(駝酪浦兒)·침채보아(沈菜浦兒)·조치보아(助致浦兒) 등으로 불렸다. 주로 백자로 제작되었으며, 이 경우 백사보아(白沙浦兒)·사보아(沙浦兒)·사평보아(沙平浦兒)·청보아(靑浦兒)·채문보아(綵紋浦兒)·당보아(唐浦兒)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이 가운데 청보아는 백태청유자였을 것이며, 이외에 유기로 만든 것은 유보아(鑰浦兒)라고 했다.

이처럼 보아는 음식을 담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일부는 공예품을 제작할 때 작업도구의 일종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화원이 많이 사용하였다. 화원에게 지급된 보아는 사보아(沙浦兒) 또는 사평보아(沙平浦兒)로도 표기되었으며,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20개까지 지급되었다. 특히 사평보아는 17세기에 간행된 의례를 중심으로 주로 화원에게 지급된 물품에 해당하여 이 부분도 흥미롭다. 17세기 백자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직접 매칭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칭에서 ‘평(平)’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내저면이 평평한 스타일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화원 등 장인들이 작업용으로 사용한 사발과 보아가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동시기의 출토품 중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과 매칭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 부분은 출토된 백자에 새겨진 간지(干支)를 통해서 1649~1654년 사이에 운영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광주의 송정동 백자요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송정동에는 현재까지 10기의 가마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1호·2호·4호·5호·6호 가마가 발굴 조사되었다.³³⁾ 여기에서 송정동 1호는 다양한

31) 정희정, 「음식기명 보아(浦兒)에 관한 고찰」, 『陶藝研究』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7, 126-128쪽.

32)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18a, 433-434쪽.

33) 조선관요박물관,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 2008 ;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

기종의 양질백자를 생산하였고 나머지 가마들에서는 중하품의 조질백자를 주로 생산했다. 송정동 백자요지에서 생산한 백자는 대부분 왕실과 중앙관청으로 공급되었는데³⁴⁾ 조질백자 중 일부가 장인들에게 작업도구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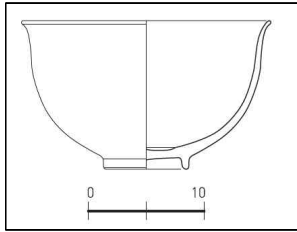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송정동 2호 가마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출토유물의 유형 분류 결과 백자발은 크기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³⁵⁾ 구연지름이 20cm 내외이면서 높이가 10cm 이상인 것과 구연지름이 12~13cm 정도에 높이가 10cm 이하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큰 것을 당시에 사발이라 불렀을 것이라 생각한다(도 4, 5). 이러한 주장은 조선 후기 반상기의 종류와 형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아사카와 다쿠미의 견해가 중요한 논거가 된다. 그는 사발, 보아, 종자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사발>보아>종자순으로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³⁶⁾ 이 견해를 염두에 두고 실제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백자발의 경우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크기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6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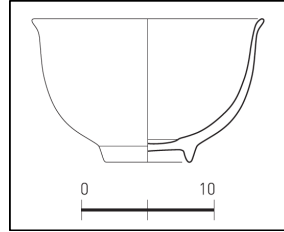
34) 송정동에서 제작한 백자는 왕실과 관련해서는 원각사에서 사용되었고, 어영청과 같은 중앙관청에서도 썼다. 김경중, 「17世紀 銘文白磁를 통해 본 官窯의 運營時期-生産·消費遺蹟出土品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77, 韓國考古學會, 2010, 183쪽 참조.

35)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보고서, 2020b, 300-304쪽.

36)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116-117쪽.



도 4.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발1, 추정구경
21.2cm, 높이 12.7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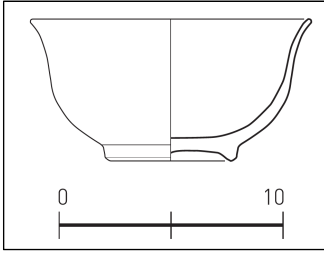
도 5.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발2, 추정구경
17.4cm, 높이 10.7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그렇다면 백자발 중에서도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다른 명칭으로 불렸을 것인데, 사발과 종자 사이에 보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용한다면 현재 소형 백자발이라고 구분한 것이 보아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송정동에서 출토된 백자를 기준으로 보면 백자발로 분류한 것 중 작은 크기인 구연지름이 12~13cm, 높이가 10cm 이하인 발이 바로 그것이다(도 6, 7). 그동안 문헌에서는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백자 중에서 무엇이 보아인지 불분명하였다.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것이 보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기존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소형의 백자발 또는 백자잔 중 특정 유형이 보아였을 가능성이 높다.³⁷⁾ 다만 아사카와 다쿠미가 보이는 구연지름과 저부지름이 거의 같다고 한 점을 염두에 두면 17세기 이후에는 소형 백자발이 더 보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백자발이 송정동과 유사한 시기에 운영되었던 선동리 2호 백자요지에서 출토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³⁸⁾ 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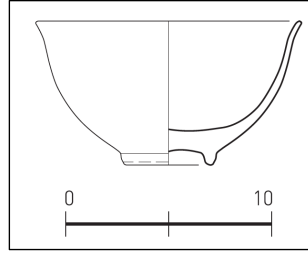
37) 물론 조선전기의 문헌과 발굴조사결과를 통해 보아가 기준에 백자잔으로 구분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윤희정,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2-123쪽.

38) 경기도자박물관, 『사적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번천리 8호·선동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 6.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발3, 구경 12.6cm, 높이
6.3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7.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발4, 추정구경
12.8cm, 높이 6.9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한편 백자사발과 보이는 안료를 아교와 섞어서 채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사발은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는 커서 많은 양의 안료를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며, 이것은 여러 명의 화원이 같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사발보다는 크기가 작은 보이는 사발에 개어놓은 안료를 덜어 쓰거나 여러 가지 안료를 섞어서 혼색을 만들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접시는 음식기명을 대표하는 기종으로, 보통 기벽이 낮고 넓게 벌어진 모양을 하고 있어 주로 국물이 없는 음식을 담을 때 많이 사용되었다(도 8). 17세기 의궤에서 화원이 사용한 접시는 사접시(沙貼匙, 沙貼匙), 상접시(常貼匙), 채색접시(彩色貼匙), 자접시(磁貼匙)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색접시로 명명된 것으로 보아 주로 안료를 풀어서 팔레트로 사용했음을 알 수

리 2호 요지 일원』, 2013, 152-153쪽.

39) 화원의 작업에서 사발과 보이는 구체적인 쓰임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권지은교수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있다. 접시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30개까지 사용되었으며 화원에게 지급된 작업도구 중 수량이 많은 편이다. 실제 관요의 백자가마터에서 확인되는 기명 중 접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는데, 1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신대리 12호 백자요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가마 4기와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유물 전체에서 접시가 72.8%로 압도적인 양을 차지한다.⁴⁰⁾ 화원에게 지급된 접시의 형태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의 소상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안료별로, 그리고 농도별로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중소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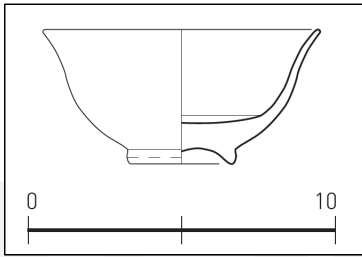
도 8.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접시, 구경 17cm, 높이 4.5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종자(種子, 鍾子)도 화원에게 지급되는 백자 품목 중 하나이다. 종자라고도 하며, 보통 간장, 고추장 등 장류를 담아내는 작은 크기의 그릇으로 알려져 있다.⁴¹⁾ 17세기 의례에서 화원에게 지급할 때는 사종자(沙種子, 沙鍾子), 백사종자(白沙種子)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17세기 관요백자요지에서 출토된 여러 기명 중 백자잔으로 불리는 것이 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구연지름은 8~9cm, 높이는 5cm가 넘지 않는다(도 9, 10). 구체적으로 화원에게 지급된 종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크기로 보아 접시와 같이 안료를 개어서 붓을 찍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백자에 안료에 남아있는 상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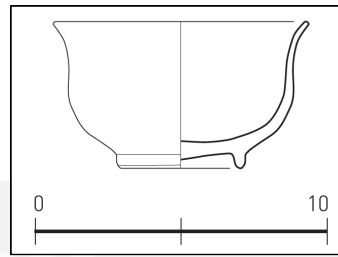
40)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보고서, 2019, 311쪽.

4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2』, 2018b, 863쪽.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조선말기~근대기로 시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서울 무악2구역 유적에서 백자 접시와 발 등의 내저면에 적색, 녹색, 청색, 흑색 등의 안료가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⁴²⁾ 이러한 사례는 문헌뿐만 아니라 실제 유적 출토품을 통해서도 백자가 화원들이 사용한 작업도구였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도 9.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잔1, 구경 9cm, 높이 4.4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10. 송정동 2호 백자요지 출토 백자잔2, 추정구경 8.2cm, 높이 5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막자는 안료를 뺑거나 갈 때 사용하는 방망이이다. 사막자(沙莫子, 沙幕子), 사마자(沙磨子, 沙个子), 사추(沙錘)로 표현되어 있다. 막자는 자기 외에도 목막자(木莫子), 목추(木錘)라 하여 목재로 된 것도 화원들이 사용하였다. 막자는 고체형태의 안료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 또는 안료를 아교를 넣어 개는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로, 화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도구였다. 발 또는 보아 등과 같이 오목한 그릇과 세트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백색계열의 안료로 단청이나 목재 공예품의 가칠용 또는 조색용으로 사용된 정분(丁粉)의 경우 탄산석회가 주성분으로 석회질 암석인 백악(白堊)의 일종이다.⁴³⁾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곱게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42)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무악2구역 유적』, 2018, 583쪽.

43) 정혜영, 앞의 논문, 2018, 12-13쪽.

또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황새계열의 안료인 석황(石黃)은 석자황(石紫黃)으로도 불리는데, 재질이 단단하여 화공이 갈아서 채색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안료 중에 일부는 화원이 최종적으로 갈아서 사용해야 했기에 막자는 꼭 필요한 작업도구였다.

막자는 실제 17세기 관요에서 출토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선동리 2호와 상림리 3호 백자가마에서 각각 막자가 출토되었다(도 10, 11).⁴⁵⁾ 선동리 2호에서 출토된 막자의 경우 보고지는 기물의 손잡이 부분이라고 하였으나 생김새로 보아 막자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막자는 한쪽 끝부분을 둥글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고체를 뺄거나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막자는 약사발과 함께 제약용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도 11. 상림리 3호 출토 백자 막자편, 잔존길이 4.7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도 12. 선동리 2호 출토 백자 막자편, 잔존길이 5.2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이외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대접(沙大貼) 1족, 즉 10개를 화원에게

44) 서유구 저·임원경제지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2』,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6, 292쪽.

45)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책, 2013, 255쪽 ;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책, 2020b, 242쪽.

지급한 사례가 있다. 완도 가끔 지급되었는데, 17세기대 의궤에는 사자완(沙磁碗) 또는 대자완(大磁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인조대왕인렬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13524)를 보면 화원에게 지급된 일련의 작업도구 목록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⁴⁶⁾ 열쇠가 달린 이층목궤 하나에 백자 막자 2개와 목제 막자 10개 모두 12개, 사접시 30개, 사발 20개, 사평보아 20개, 벼루 2개, 채도 1가 세트로 제공되었다. 모두 합치면 85개로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궤에 담아서 꾸러미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효종]부묘도감도청의궤』(奎 13530), 『[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奎13918)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완벽하게 매칭되는 사례라고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인 반닫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제가구였을 것이다(도 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화원에게는 백자로 만든 사발, 접시, 보아, 종자, 막자 등이 작업도구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동체가 높고 오목한 형태의 발과 보이는 막자와 세트를 이루어 안료를 뺏거나 깔 때 사용했으며, 접시와 종자는 안료를 색깔별로 구분한 팔레트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13. 반닫이[櫃], 20세기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Ⅲ. 화원 소용 백자의 지급방식

앞에서 17세기 왕실 행사에 동원된 화원의 업무와 그들이 사용한 작업도구

46)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13524), “一房所掌... 書員所用 沙錠二 沙貼是 三竹 沙鉢二竹 沙平甫兒二竹 二層木櫃一 鎖鑰具 木鏈十介 紫硯二面 彩刀一”

가운데 백자의 종류와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화원들이 사용한 백자는 어떻게 조달하여 지급하였던 것일까? 의례를 살펴보면 각종 현물은 담당관사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한양의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현물 중 하나인 백자의 조달은 사옹원(司饔院)과 평시서(平市署)와 같은 관사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생산과 조달은 전기부터 공식적으로 사옹원이 중심이었다. 사옹원은 본래 이조(吏曹)에 소속된 관사로, 주 업무는 어선(御膳支供)과 궐내공궤(闕內供饋)를 관장하는 것이었다.⁴⁷⁾ 어선지공은 국왕·왕비·세자·상왕·왕대비 등 왕실 가족의 궐 내외에서의 음식 지공을 말하며, 궐내공궤는 대궐에 업무차 출입하는 빈객과 관원 및 금군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것이다.⁴⁸⁾ 여기에 각종 연향과 왕실 제례 등에 필요한 음식과 그것을 담을 기물인 백자 등의 그릇을 만들어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옹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⁴⁹⁾ 이를 위해 조선 초에 경기도 광주목(廣州牧)에 분원 즉, 관요(官窯)를 설치하여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제작, 수납, 출납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였다.⁵⁰⁾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대부분 일상용 음식기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기, 내의원(內醫院)의 제약(劑藥) 용기 등으로 사용되었다.⁵¹⁾ 사옹원에서는 연례원진상자기(年例元進上磁器) 규정을 두어 1년에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백자를 번조하여 조달하였다.⁵²⁾ 그런데 이 외에 사신 접대, 가례나 왕실 제사, 내의원 등 부정기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번(別燔)으로 충당하였다.⁵³⁾

47) 『增補文獻備考』 卷222, 職官考 9 司饔院.

48)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0, 204쪽.

49) 서울역사편찬원, 『조선시대 서울의 관청』, 2019, 148쪽.

50) 김귀한, 「15~17세기 관요 백자 명문의 변화와 그 배경」, 『야외고고학』 17, 한국문화유산협회, 2013, 15쪽.

51)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창비, 2018, 175쪽.

52)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154쪽.

53) 김귀한, 「15~17世紀 朝鮮 官窯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62쪽.

이처럼 왕실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백자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사용원이 중심이었고, 당연히 왕실 소속으로 활동한 회원에게 지급되는 백자도 상당부분 관요산이었을 것이다.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를 회원에게 제공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분원에서 제작한 조질백자를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7세기에 운영된 관요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지리, 탄벌동, 학동리, 상리리, 선동리, 송정동, 유사리, 신대리, 지월리, 관음리 등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또한 현재는 용인시이지만 당시 광주목에 속했던 용인 왕산리까지 포함된다.⁵⁵⁾ 이와 같이 17세기대에 운영된 관요의 백자요지에서 확인되는 백자를 보면 양질보다는 조질백자의 생산량이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17세기 후반에 운영되었던 유사리 8호 요지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2기의 백자가마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발접시·잔으로 대부분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전체의 5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⁶⁾ 조질백자의 상당량은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음식기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중 일부는 장인들의 작업도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둘째, 분원에서 생산한 조질백자를 왕실과 중앙관청 등에서 1차로 사용하고 이것을 재활용하여 다시 회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현종왕세손책례도감의궤』(奎13067)에 따르면 회원에게 화필과 더불어 파접시(破貼是) 10개를 지급한 사례와⁵⁷⁾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奎13061)에서 회원이 파사기(破沙器)를 사용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장기훈,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美術史學研究』 224, 한국미술사학회, 1999, 90쪽 ; 김경중, 앞의 논문, 2010, 169쪽.

55) 韓國文化遺產研究院, 『龍仁 旺山里 窯址』, 2012.

56)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0a, 149쪽.

57)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 “稟目...畫員所用 畫筆三柄 破貼是一竹 沙鉢三立...”

이렇게 파손된 백자를 화원이 작업도구로 활용한 사례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윤현이 비용을 아끼고 보관해 두는 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각사에 오래 묵어 찌고 깨진 물건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창고에 저장해 두었는데 뒤에는 모두 쓸 데가 있었다. 일찍이 사옹원에서 깨진 사기그릇을 거두어다가 저장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웃었다. 그러나 그 후에 궁성(宮省)을 수리하게 되자 단청 물감을 담은 그릇이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그 깨진 사기 그릇을 내어다 나누어 주니 사용하기에 넉넉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나무 툭밥(木屑)을 사용하게 했던 것보다도 훌륭한 일이라고 하였다.⁵⁸⁾

위의 기록은 선조 때 호조판서를 지냈던 윤현(尹鉉)의 즐기이다. 이를 보면 깨진 백자가 안료를 풀어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기그릇은 분원에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옹원 관할 아래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다가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파사기를 분원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장인이 야간 작업을 할 때 등잔용으로 파사기를 지급하기도 하여 백자 재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렇게 백자가 음식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된 사례는 상의원(尙衣院)에서 각처에서 사용하는 사연(沙硯)을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등의 사점시로 대용할 것을 청하기도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⁰⁾

58) 『宣祖修正實錄』 12卷, 선조 11년 7월 1일 庚戌, “鉉靳於出費, 而固於藏蓄, 各司陳久腐破之物, 皆籍記藏庫, 後皆有用. 嘗收貯饗院破沙器, 人皆笑之. 後值宮省修理, 多用丹青研器, 乃出破沙器分給, 用裕費省. 人以爲, 優於陶侃木屑之用焉.”

59)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56-1), “還下秩...一爲行下事本所諸色匠人等 夜役時 燈盞次破沙器一竹 用還次進排...”

화원에게 지급되는 물품들은 사용원뿐만 아니라 평시서(平市署)에서 담당하기도 했다. 평시서는 조선 초에 경시서(京市署)로 불리던 관사로, 정부가 공인한 시전(市廛)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였다.⁶¹⁾ 본래는 도량형과 물가를 통제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시전을 통해 조달되는 상품 등 다방면에 걸쳐 유통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⁶²⁾ 임진왜란 이후 왕실 행사에 동원되는 물력 중 상당 부분을 한양의 시장에서 무역(貿易)을 통해 직접 조달하였는데, 이 업무를 평시서가 주로 담당하였다.⁶³⁾ 예를 들어 『효종영릉(孝宗寧陵)遷陵都監都廳儀軌』(奎13532-v.1-3)에 의하면 화원에게 지급하는 백자를 모두 평시서에서 공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⁴⁾ 또한 평시서는 화원들에게 지급하는 백자뿐만 아니라 벼루 등 다른 작업용 도구를 책임지기도 했고,⁶⁵⁾ 가죽·옥·저울·열쇠·가위 등 다양한 물품을 다루었다.⁶⁶⁾ 평시서에서 조달한

-
- 60) 『承政院日記』 25책, 인조 7년 3월 21일 정축, “俞伯曾以尙衣〈院〉官員以提調意啓曰, 自前諸處所用沙硯, 例爲司饗院燔造輸送, 則本院得以支用, 上年平安道暗行御史書啓, 據司饗院覆啓, 沙器燔造, 限今年停罷事啓下云, 沙硯亦在停罷中, 諸處所用, 他無出處, 極爲悶慮, 自今後各處所用沙硯, 限沙器所復設間, 以內資寺·內瞻寺·禮賓寺上沙貼[硯], 是代用, 何如? 傳曰, 依啓.”
- 61) 변광석, 「18세기 平市署의 市廛運營과 市廛體系의 變質」, 『역사와 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399쪽.
- 62) 노혜경, 「조선후기 평시서(平市署)의 기능과 변화」, 『역사와 실학』 65, 역사실학회, 2018, 134쪽.
- 63) 나영훈, 앞의 논문, 2016, 244쪽. 이때 무역이란 국가간 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의 시장에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64) 『[孝宗寧陵]遷陵都監都廳儀軌』(奎13532-v.1-3), “所掌...畫員所用 沙用一 沙大貼一竹 沙鉢一竹 貼匙一竹 沙磨子四箇 以上平市署”
- 65)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 “一畫員所用 大硯二面 用後還下次以進排事平市署”
- 66)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 “毛狗皮一令 細玉二兩五錢 沙魚皮三令十五斤 稱子一部五十 兩稱子一部 鎖鑰具一部 柳筍二部 沙竹子一介 沙貼一竹 水沙鉢三介 常沙鉢五介 沙大貼五介 沙甫兒五介 沙盆子二介 沙白蹲缸二介 引導一介 熨斗一介 剪刀一

백자의 제작지가 당시의 분원이었는지 아니면 분원 이외의 가마에서 제작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왕실에서 백자의 상당량을 담당관사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조달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당시의 정황은 살필 수 있다.

IV. 맺음말

아사카와 다쿠미는 조선에서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릴 때 보통 사발 1개, 대접 1개, 보아 3개, 접시 5개, 종자 1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⁶⁷⁾ 그리고 이러한 반상기(飯床器) 구성은 이미 조선전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⁶⁸⁾ 즉 사발, 대접, 보아, 접시, 종자는 음식기를 대표하는 기종들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관요를 비롯해 조선시대 백자가마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백자가 이들 기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상기로 대표되는 이 기종들이 장인, 특히 화원이 중요한 작업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요에서 제작된 상당량의 백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화원이 사용한 백자사발과 보아는 막자와 짝을 이루어 안료를 뺑거나 개어서 사용할 때 활용하였으며, 안료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채색할 때는 접시와 종자를 활용했다. 안료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원에게 제공된 백자의 양이 상당했으며, 이를 사용원과 평시서에서 공급하였다. 이때 화원에게 공급한 백자는 관요에서 생산한 사용하지 않은 조질의 신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관사에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기도 했다.

介 以上平市署”

67)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앞의 책, 1996, 116쪽.

68) 윤효정, 앞의 논문, 2020, 120쪽.

그동안 도자사에서 의례를 다룰 때 주로 의례기에 집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왕실과 중앙관청에서는 다양한 용도와 방식으로 백자가 사용되었다. 관요에서 제작된 수많은 백자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례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사료

- 『[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奎14869)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44)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奎13919)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076)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奎13078)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奎13122-v.1-2)
『[仁祖莊烈后四尊號]尊崇都監儀軌』(奎13262)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奎13067)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
『[孝宗寧陵]遷陵都監都廳儀軌』(奎13532-v.1-3)
『宣祖修正實錄』
『承政院日記』
『永寧殿修改都監儀軌』(奎14224)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奎13524)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奎13556-1)
『增補文獻備考』

2. 단행본

-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창비, 2018.
곽동해, 『단청과 불화에 전용된 전통안료의 문헌사적 연구』, 학연문화사, 20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1』, 2018a.
_____,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2』, 2018b.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례 해제집 2』, 2004.
_____, 『규장각 소장 의례 해제집 3』, 2005.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 2009.

- 서울역사편찬원, 『조선시대 서울의 관청』, 2019.
-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심용지 2』,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6.
-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0.
-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교재, 1996.
- 영건의궐연구회, 『영건의궐-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2010.
- 이성미,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왕실 혼례의 기록』, 소와당, 2008.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술과학, 2013.

3. 발굴조사보고서

- 경기도자박물관, 『사적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변천리 8호-선동리 2호 요지 일원』, 2013.
-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9.
-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0a.
- _____, 『광주조선백자요지 (사적 제314호) 주변지역 6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0b.
-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1998.
- 조선관요박물관, 『廣州의 朝鮮陶磁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 _____,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 2008.
- 韓國文化遺產研究院, 『龍仁 旺山里 窯址』, 2012.
-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무악2구역 유적』, 2018.

4. 논문

-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美術史學研究』 263, 한국미술사학회, 2009.

- _____,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美術史學報』 48, 미술사학회, 2017.
- 김경중, 「17世紀 銘文白磁를 통해 본 官窯의 運營時期-生産-消費遺蹟出土品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77, 韓國考古學會, 2010.
- 김귀한, 「15~17세기 관요 백자 명문의 변화와 그 배경」, 『야외고고학』 17, 한국문화유산협회, 2013.
- _____, 「15~17世紀 朝鮮 官窯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수진, 「성소聖所의 구현 : 조선 왕실 모란병[牧丹屏]의 의미와 용도」, 『안녕모란』, 국립고궁박물관, 2021.
-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노혜경, 「조선 후기 평시서(平市署)의 기능과 변화」, 『역사와 실학』 65, 역사실학회, 2018.
-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미술사학회, 1995.
- 변광석, 「18세기 平市署의 市塵運營과 市塵體系의 변질」, 『역사와 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 안세진, 「조선 16세기 기영연(耆英宴)에 사용된 사연용(賜宴用) 화준(花樽)·주준(酒樽)의 조형 특징과 진설 방식—〈선조 초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圖)〉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14, 동양미술사학회, 2022.
- 안성희,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 윤효정, 「조선전기 백자 규화배(葵花盃)의 조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 _____, 「조선전기 官窯白磁의 器皿體系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종숙, 「조선 후기 국장용(國葬用) 모란병[牧丹屏]의 사용과 그 의미-정조(正祖) 국장(國葬) 관련 의례(儀軌) 분석을 중심으로」, 『古宮文化』 1, 국립고궁박물관, 2007.
- 장경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장기훈,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 미술사학회, 2007.

1998.

_____, 「朝鮮 17世紀 前半 分院의 白磁樣式 變化」, 『美術史學研究』 224, 한국 미술사학회, 1999.

정혜영, 「고문헌에 나타난 전통안료의 원료 및 산출지 정보」, 『전통안료와 원료 광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정희정, 「음식기명 보아(浦兒)에 관한 고찰」, 『陶藝研究』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7.

최 건, 「청화백자에서 龍樽이 갖는 의미 - 특히 17, 18세기를 중심으로」, 『동양 미술사학』 3, 동양미술사학회, 2015.

홍선표, 「화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조선화원대전』, Leeum, 2011.



Abstract

TYPES AND SUPPLY METHODS OF WHITE PORCELAIN USED
BY THE COURT PAINTERS IN UIGWE DURING THE 17TH
CENTURY

HAN HYESUN (HAN, HYE SUN)

White porcelain used in royal court and government offices of Joseon was made in the main center of Saongwon, the royal kiln, and is classified into high-quality white porcelain, which was baked individually in the saggar with fine sand grain support, and poor-quality white porcelains, which were baked in layers with the support of taetobijeum(roughly baked porcelain used as a support for baking good porcelain) or sand.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and interest in the high-quality white porcelain used as the highest level ritual wares and food utensils, but the poor-quality white porcelain, which takes up dominant portion, hasn't been studied that much.

However, I, the author of this study, found out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white porcelain was provided to craftsmen who were gathered to various royal events, while researching Uigwe resources. This means White porcelain was used for craftsmen's production tools beyond simple dish or ritual wares. White porcelain was used by craftsmen in various fields, and among them, craftsmen who used the most number were 'the Court Painters(畫員)'.

White porcelain bowls and boja used by the Court Painters were utilized to grind or mix pigment in pairs with makja, and when pigment was divided by colors to pain, plate and jongja seemed to be used. As there were many types of pigment, the amount of white porcelain given to the Court Painters was considerable, and the distribution was done at Saongwon and Pyeongsiseo. The white porcelain provided to the Court Painters might have been poor quality new products that weren't used in the Royal kiln, but sometimes, they were reused from damaged ones from other government offices.

It is well known fact that ritual wares were main focus in studying Uigwe in the history of porcelain. However, it was white porcelain that was used in royal court and central government offices in various ways and uses. In order to specify how a great deal of white porcelain made in the royal kiln was used, Uigwe is still important and eff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t carefully in the multiangles.

Key Words : Joseon Dynasty, Uigwe(儀軌), the Court Painters(畫員), White porcelain, Saongwon(司饗院), Pyeongsiseo(平市署)

<부록> 규장각 소장 17세기 의례에 기록된 화원 소용 물품 목록

연번	의례명	간행연대	규장각 소장번호	원문
1	[元宗]禮葬都監儀軌	1627년 (仁祖5年)	奎13518	所掌...畫員所用沙鉢一竹甫兒一竹種子一竹貼是一竹
2	[宣祖穆陵]遷奉都監儀軌	1630년 (仁祖8年)	奎15070	[所掌]...畫員所用常貼是常沙鉢已上平市署
3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1638년 (仁祖16年)	奎13061	三房玉冊色...畫員所用沙鉢柒貼是捌種子肆用還次以進排事平市署
4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1638년 (仁祖16年)	奎13061	儀仗色...畫員所用畫筆次黃毛貳條破沙器入量
5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1645년 (仁祖23年)	奎13062	稟目秩...畫員所用沙鉢二介沙貼是三竹沙鉢二竹沙平甫兒二竹
6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	1645년 (仁祖23年)	奎13062	甘結秩...一要采[腰彩]輿畫成次畫員所用沙磨子一介用後還下次進排事平市署
7	[昭顯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1645년 (仁祖23年)	奎13918	稟目秩...畫員所用六張付地衣一浮木莫子五介層楨具鎖鑰一部沙貼是二竹沙甫兒五介大貼五介沙鉢三介陶東海一
8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	1645년 (仁祖23年)	奎13919	魂宮造成所...畫員所用器皿沙鉢一竹沙貼是一竹甫兒一竹沙槌一介土火爐一陶東海一巨乙乃白苧布二尺
9	[顯宗]王世孫冊禮都監儀軌	1649년 (仁祖27年)	奎13067	稟目...畫員所用畫筆三柄破貼是一竹沙鉢三立
10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1649년 (孝宗即位年)	奎13521	座目...畫員所用沙大貼大介沙甫兒五介沙鉢五介沙孑子一介剪板二介楨子一部
11	[仁祖]國葬都監都廳儀軌	1649년 (孝宗即位年)	奎13521	稟目·甘結·手本...畫員色各彩色所用沙鉢一竹五立貼匙二竹甫兒一竹五立方器里二
12	仁祖大王仁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1651년 (孝宗2年)	奎13524	一房所掌...畫員所用沙鉢二沙貼是三竹沙鉢二竹沙平甫兒二竹二層木楨一鎖鑰具木鉢十介紫硯二面彩刀一
13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1651년 (孝宗2年)	奎13071	甘結秩...畫員所用沙菓子一沙貼匙沙鉢甫兒各一竹硯一面

14	[孝宗]耐廟都監都廳儀軌	1661년 (顯宗2年)	奎13530	稟日秩...儀仗等修補時畫員所用各樣彩色所盛沙貼是二竹
15	[孝宗]耐廟都監都廳儀軌	1661년 (顯宗2年)	奎13530	稟日秩...畫員所用沙鎚二沙貼是三竹沙鉢二竹沙平甫兒二竹二層木橫一鎖鑰具木鎚十箇紫硯二面彩刀一
16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667년 (顯宗8年)	奎13076	稟日及手本秩...畫員所用黃毛一條眞墨二丁沙鉢一竹大貼三竹沙莫子一介硯二面二層橫一部陶東海一介土火爐一介破油笔一張
17	[肅宗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1667년 (顯宗8年)	奎13076	稟日秩...一本房所掌畫員所用沙磨子三介鍾子五立沙鉢五立等物
18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67년 (顯宗8年)	奎14224	稟日秩...本所所掌腰舉龍亭等起畫時畫員所用沙貼匙二竹沙鉢一竹半沙平甫兒一竹橫一坐具鎖鑰紫硯一面等物用還次以下進排事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19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	1669년 (顯宗10年)	奎13496	稟日秩...諸色工匠所用陶東海三方文里六瓢子四沙鉢二竹畫員所用沙莫子一諸色工匠地排網席四立等物用後還下次
20	[神德王后]耐廟都監都廳儀軌	1669년 (顯宗10年)	奎13496	用後還下秩...畫員所用沙鎚二沙貼匙三竹沙鉢一竹沙甫兒一竹木鎚十介紫硯一面
21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1671년 (顯宗12年)	奎13078	稟日秩...畫員所用沙莫子一沙貼匙一竹沙鉢五立甫兒五立硯一面以上用還戶曹平市署
22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1671년 (顯宗12年)	奎13078	稟日秩...畫員所用各色彩色貼匙入盛次二層大橫一坐木尔子二十介造作進排事別工作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依本房所掌屏風起畫時所用硯一面大圓盤二立用後還下
23	[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1671년 (顯宗12年)	奎13078	稟日秩...本房所掌中屏風起畫之役萬分緊急畫員所用土火爐二白沙鉢二竹貼是三竹甫兒一竹沙鎚十介等物用後還下次以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依戶曹平市署

24	[孝宗寧陵]遷陵都監都廳儀軌	1673년 (顯宗14年)	奎13532-v.1-3	所掌... 畫員所用沙用一沙大貼一竹沙鉢一竹貼匙一竹沙磨子四箇以上平市署
25	[顯宗]殯殿都監儀軌	1675년 (肅宗1年)	奎13540	稟日秩... 畫員二人鹿角膠一兩泥金一錢雪綿子五介磁貼匙沙幕子各一炭三升土火爐一進排用還
26	[仁宣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1676년 (肅宗2年)	奎13536	稟日秩... 畫員所用沙鉢二沙貼是三竹沙鉢一竹沙甫兒一竹木鎚十介紫硯一面畫筆二柄
27	[仁宣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1676년 (肅宗2年)	奎13536	儀軌... 畫員所用沙貼匙一竹沙鉢五立沙莫子三介等物乙良用後還下次以亦爲進排事捧甘
28	[仁祖莊烈后三尊號顯宗明聖后上尊號]尊崇都監都廳儀軌	1676년 (肅宗2年)	奎13258	稟日秩... 今此尊崇教是時畫員所用白沙鉢五立白沙種子五立沙貼匙一竹用還次以依前例進排事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戶曹平市署
29	[顯宗]祔廟都監儀軌	1677년 (肅宗3年)	奎13541	稟日秩... 本房所掌前排儀仗旗幟改畫時畫員所用沙磁碗五介沙鉢一竹陶東海二坐樑板二立等物用後還
30	[顯宗]祔廟都監儀軌	1677년 (肅宗3年)	奎13541	稟日秩... 畫員所用沙鉢二沙貼匙三竹沙鉢二竹沙平甫兒二竹二層木櫃一鎚鎚具木鎚十箇紫硯二面彩刀一
31	[明聖王后]尊崇都監都廳儀軌	1677년 (肅宗3年)	奎14896	稟日秩... 今此尊崇教是時畫員所用白沙鉢五立白沙種子五立沙貼匙一竹用還次以依前例進排事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戶曹平市署
32	南別殿重建廳儀軌	1677년 (肅宗3年)	奎14353	稟日秩... 一五峯山屏風起畫時畫員所用二層櫃一部具鎚鎚沙鉢二竹貼匙二竹縫造軍三名
33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1680년 (肅宗6年)	奎13554	稟日秩... 畫員一員兔毛筆二柄鹿角膠一錢泥金五分雪綿子三片磁貼匙一沙幕子一炭五升土火爐一盥洗位大也一手巾一進排用還
34	[仁敬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1681년 (肅宗7年)	奎13553-v.1-2	稟日秩... 畫員起畫時所用六張付地衣一浮沙莫子一介木莫子四介沙鉢一竹沙大貼一竹沙貼匙一竹大磁盥二介油紙一張二層大櫃一鎚鎚具

35	[肅宗仁顯后] 嘉禮都監都廳儀軌	1681년 (肅宗7年)	奎13084	甘結秩... 畫員所用沙莫子二沙貼匙一竹沙鉢五立甫兒五立層橫子一剪板二硯面一鍾子二以上用選
36	[肅宗仁顯后] 嘉禮都監都廳儀軌	1681년 (肅宗7年)	奎13084	稟目秩... 畫員所用二層大橫一木莫子二十箇紫硯一面大圓盤二立貼匙二竹沙鉢一竹沙莫子五箇方文里二箇土火爐一
37	太祖諡號都監儀軌	1683년 (肅宗9年)	奎14927	稟目秩... 一畫員所用畫筆六眞粉二錢沙莫子一沙鉢二鍾子三破地衣一浮
38	[明聖王后] 國葬都監二房儀軌	1684년 (肅宗10年)	奎14869	稟目秩... 畫員所用六張付地衣一浮沙莫子一木莫子四中沙鉢一竹沙大貼一竹沙貼匙一竹紫硯二面土火爐二去乃次白苧布三尺大磁盥二油紙一張二層大橫一部鎖鑰具
39	[明聖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	1686년 (肅宗12年)	奎13545	稟目秩... 畫員所用沙貼匙二竹沙莫子一沙鉢一竹方文里二土火爐一畫筆十柄眞墨半丁爭機一部熟麻一斤半海長竹四介生布隨所入本莫子十五介紫硯一面
40	[明聖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	1686년 (肅宗12年)	奎13545	[儀軌]... 畫員所用沙貼是一竹沙鉢五立沙莫子三箇尋物乙良用後選下次以亦爲進排事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41	[仁祖莊烈后] 四尊號 尊崇都監儀軌	1686년 (肅宗12年)	奎13262	稟目秩... 畫員所用白沙鉢五沙貼匙一竹沙鍾子五等用選次依前例進排事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戶曹平市署內資寺內瞻寺禮賓寺
42	冊寶改修都監儀軌	1687년 (肅宗13年)	奎14911	稟目秩... 畫員所用沙莫子一
43	[仁祖莊烈后] 國葬都監都廳儀軌	1688년 (肅宗14年)	奎14867	手本秩... 畫員所用沙貼匙二介沙鉢一水甕一用選次各該司良中捧甘事手決內依戶曹工曹繕工監軍器寺禮賓寺
44	[景宗世子] 冊禮都監儀軌	1690년 (肅宗16年)	奎13091	甘結秩... 一畫員所用眞墨二丁黃毛一條沙大貼三竹沙鉢一竹陶東海一介二層橫一破油芭一張本次土火爐一介硯二面沙莫子一介
45	[景宗世子] 冊禮都監儀軌	1690년 (肅宗16年)	奎13091	稟目秩... 畫員所用沙鉢一竹貼匙二竹土火爐一坐等物用選次進排事各該司良中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46	[景宗世子]冊禮都監儀軌	1690년 (肅宗16年)	奎13091	甘結秩... 畫員所用沙鉢一竹貼匙二竹土火爐一坐等物用還次進排事各該司良中捧甘何如
47	[玉山太嬪陞后]冊禮都監都廳儀軌	1690년 (肅宗16年)	奎13201	手本秩... 畫員所用沙莫子一沙種子二
48	[景宗世子]冊禮都監儀軌	1690년 (肅宗16年)	奎13091	稟目秩... 畫員所用沙鉢一竹貼匙二竹土火爐一坐等物
49	[莊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1691년 (顯宗17年)	奎13525	稟目秩... 畫員所用沙貼匙一竹沙鉢五立沙莫子三箇等乙良用後還下次亦爲進排之意捧甘何如堂上手
50	[莊烈王后]祔廟都監都廳儀軌	1691년 (顯宗17年)	奎13525	稟目秩... 畫員所用沙貼匙一竹沙鉢五立沙莫子三箇等乙良用後還下次亦爲進排之意捧甘何如堂上手決內依
51	[肅宗仁顯后]冊禮都監儀軌	1694년 (肅宗20年)	奎13086	用後還下秩... 畫員所用眞墨一丁黃毛一條沙大貼一竹沙鉢四立陶東海一坐二層櫃子一部俱鎖鑰破油芭一張土火爐一介紫硯一面沙莫子一介
52	[肅宗仁顯后]冊禮都監儀軌	1694년 (肅宗20年)	奎13086	稟目秩... 畫員所用沙莫子一介沙種子二立
53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1698년 (肅宗24年)	奎13503	稟目秩... 一本房使役畫員所用沙貼匙一竹沙大貼五立沙種子二立沙莫子二介等用還次以急速進排事捧甘
54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1698년 (肅宗24年)	奎13503	稟目秩... 畫員所用沙莫子三木莫子十五沙大貼三竹沙鉢一竹土火爐一剪板二紫硯一破地衣一浮破油芭一浮二層櫃一具鎖鑰
55	[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1698년 (肅宗24年)	奎13503	稟目秩... 一畫員所用沙鉢二沙貼匙三竹沙鉢二竹沙平甫兒二竹二層木櫃一鎖鑰具木鏹十介紫硯二面彩刀一